

2016. 4. 6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6년 4월 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

환경정책과장	정 환 중	2133-3510
환경홍보팀장	김 연 흥	2133-3528
담당자	안 소 영	2133-353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■ 매수 : 4 매

온비추미, 에너지빈곤 사각지대 알리는 활동 나선다

Seoul Energy Fund launches the 2nd group of volunteers to promote the energy welfare project

- 시민의 힘으로 에너지를 나누는 시민기금과 함께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앞장서
- 작년, 377가구에 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빈곤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
- '온비추미 2기' 45명 발대식 가지고 에너지복지 알리는 캠페인활동 시작

□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인 「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」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, 절감된 비용을 에너지빈곤층(소득의 10% 이상을 광열비에 지출하는 가구)에 지원하는 사업이다.

□ 작년 한해, 1,397명의 시민과 32개 기업(단체)가 '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'에 동참하여 총 2억 7천 1백만원을 모금하여,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너지빈곤층 377가구에 LED전등 교체, 단열시공, 출입문보수, 고효율보일러 교체, 미니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했다.

□ 이러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단기간 성장에는 '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자' 노력한 대학생 서포터즈 '온비추미'의 역할이 매우 컸다. 이들은 시민들에게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알리고, 에너지복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.

○ 온비추미는 에너지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.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에너지빈곤층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과 사업홍보를 통한 모금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.

* 온비추미: '온 세상을 밝게 비추다'라는 의미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들

○ 온비추미의 활동상황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홈페이지 (www.seoulenergyfund.or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□ 올해에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상징인 온비추미 2기가 기금모금을 위한 홍보, 캠페인, 교육 등 활동을 4월부터 시작한다.

□ 온비추미 1기로 활동했던 문유라 단원(25세)은 "에너지복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, 에너지를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, 우리의 활동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."라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.

□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“온비추미의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복지 모금캠페인과 홍보활동이 에너지 나눔에 더 많은 시민, 단체,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”이라며, “시민의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‘온비추미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참고자료 1

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대학생 홍보단 ‘온비추미’ 활동사진



2015년 온비추미 발대식(2015.4.29.)



명동 홍보 캠페인(2015.7.18)



에너지의 날 기금 홍보(2015.8.22.)



주거에너지효율화사업(2015.8.27)



걷기대회 온비추미 이벤트(2015.9.17.)



온맵시 나눔캠페인 바자회 부스운영(2015.11.18)